# 함께 만들어요,
# 행복한 우리마을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 02
## 문 화 · 복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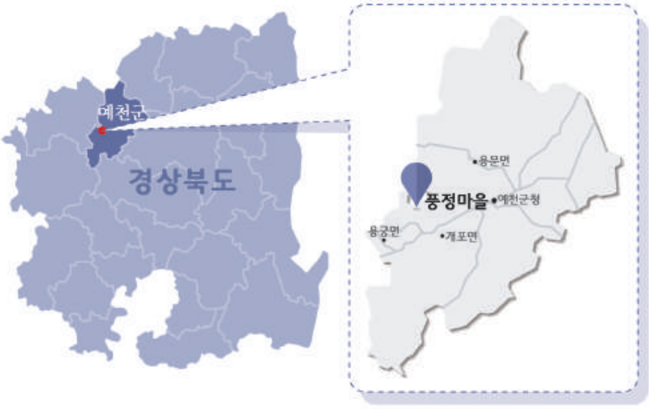
- **금상** 경상북도 예천군 **풍정마을**
- **은상** 강원도 원주시 **매지3리마을**
- **동상** 경상남도 합천군 **율지마을**
-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귀덕1리마을**
- **입선** 전라북도 남원시 **노봉마을**

문화 · 복지
금상

89.1MHz, 우리마을 행복 주파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정마을

풍정마을은 주민이 DJ로 활약하는 마을 라디오를 만들어,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일상을 보듬는 행복한 마을입니다.




**위치**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풍정1길 60

**인구** 85명

**가구** 55가구

**마을 자원**
<풍정라디오> 방송, 공동체 조직(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두꺼비바위, 젖샘, 산채

**행복마을 성공 비법**
<풍정라디오>를 통해 주민의 일상 공유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마을 행사
끊임없는 도전으로 삶의 활력소 창출

## 집에서도, 밭에서도 <풍정라디오>로 주민 소통

풍정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주민이 대부분 70~80대 노인입니다. 마을 인구는 55가구 85명이고, 혼자 살아가는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분위기가 침체되어 공동체 붕괴 위기를 겪던 마을이 지금은 생기와 활력이 넘칩니다. 바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풍정라디오〉 덕분입니다.
이 라디오는 여느 라디오 방송과 조금 다릅니다. 마을회관 반경 1km 내에서 들을 수 있는 오직 주민을 위한, 주민의 라디오입니다. PD도, DJ도 주민입니다. 편성표나 방송 대본이 없고, 주민 누구나 원할 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안쪽에 스튜디오를 마련한 '보이는 라디오'라서, 현장의 청취자가 불쑥 끼어드는 일도 있습니다. 주민은 이웃의 수다를 집이나 밭에서 듣습니다. 덕분에 서로 속사정까지 잘 아는 가족 같은 마을이 됐습니다.
풍정마을 주민은 〈풍정라디오〉를 통해 날마다 이야기꽃을 피우고,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 가족처럼 챙깁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1년 반 만에 집 밖으로 나선 주민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소통의 즐거움을 새롭게 깨달은 주민은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마을 행사, 커지는 주민 행복

〈풍정라디오〉가 준 긍정적인 힘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음에 활력이 생기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민 스스로 마을 입구와 안길에 꽃을 심고, 골목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동참하며 시작된 마을 가꾸기가 이제는 모든 주민의 행복이 됐습니다. 마을을 찾는 사람마다 풍정마을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칭찬하니 이 또한 주민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풍정라디오〉의 두 번째 긍정적인 힘은 2018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풍정마을 영화의 밤'입니다. 이 행사는 〈풍정라디오〉 덕분에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2017년 한 지역 방송국과 함께 마을회관에 미니 FM 방송국을 설치하고 촬영한 다큐멘터리 〈풍정라디오〉를 마을 주민이 모여 함께 관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풍정마을 영화의 밤'이 열리는 날은 작은 마을 축제입니다. 레드 카펫은 깔리지 않지만 모두가 주인공이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 끊임없는 도전으로 삶의 활력소 창출

이처럼 〈풍정라디오〉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큽니다. 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풍정마을의 라디오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풍정라디오〉는 뉴욕TV&필름페스티벌 은상,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서울노인영화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 대형 극장 스크린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던 순간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 말합니다. '풍정마을 영화의 밤'과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요즘 풍정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유튜브 채널 '풍정라디오 – 예천산채'입니다. 아이 한 명 없고 노인이 사는 마을이지만, 유튜브를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풍정라디오 – 예천산채'에는 그들의 일상이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신명 나게 그려집니다. 농촌의 일상도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되고, 풍정마을 노인도 유튜브 스타 '박막례 할머니'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예정입니다. 농촌의 제일 좋은 관광자원은 꾸밈없는 일상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과 끈끈한 정을 확인하고 행복한 노년을 일궈가는 나날, 바로 풍정마을의 오늘입니다.

#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2016년~현재
250회
(매주 2회 이상 송출),
주민 전체 참여

〈풍정라디오〉

2018년 6월~현재
10회
주민 30명 참여

마을 안길과
입구 꽃길 조성

2018년 9월~현재
8회
주민 30명 참여

마을 벽화 보수

2018~현재
2회
주민 전체 참여

마을 영화제
‘풍정마을 영화의 밤’

## 정부 지원 실적

2018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농림축산식품부〉
5억원

#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 “〈풍정라디오〉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우울해서 1년 반 동안 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문 꼭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요. 그러다 〈풍정라디오〉를 듣고 용기 내서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가슴에 뭉쳐 있던 게 한꺼번에 내려가더라고요. 〈풍정라디오〉는 운명 같아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살렸어요. 예전의 나처럼 우울한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용기 내서 바깥세상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가까이에도 분명 〈풍정라디오〉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마을 주민, 손순희)

### “마을 어른들이 10년, 20년은 더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노인들께 “오래 사셔야지요” 하면 “더 살아 뭐 해” 라고 합니다. 우리마을은 다릅니다. 〈풍정라디오〉를 방송하고 나서는 “10년, 20년은 더 살아야지” 하세요. 생일날 자식들에게 안 와도 된다고 말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주민과 즐겁게 생일잔치를 하니까요. 큰 낙 없이 살아가던 어른들이 낙을 찾았어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갑니다. 우리마을의 사례가 다른 마을에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대표, 이상배)

**여행 추천 코스** 물과 숲에서 즐기는 체험 여행

**1일 차** 회룡포 → 8.88km, 승용차 19분 → 풍정마을 → 0.21km, 도보 5분 → 두꺼비바위와 젖샘

**2일 차** 풍정마을 → 13.92km, 승용차 24분 → 삼강주막 → 30.47km, 승용차 45분 → 초간정

**풍정마을 두꺼비바위와 젖샘**

마을 뒷산 어귀에 옛날 주민이 대대로 이용한 샘물이 있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마을의 식수였기에 ‘젖샘’이라 부른다. 젖샘 옆에 두꺼비 모양 바위가 눈길을 끈다. 주민은 두꺼비바위가 샘물을 지킨다고 믿는다.
054-653-2500

사계절 전통과 생명, 축제의 터전

# 강원도 원주시 매지3리마을

원주매지농악과 《토지》의 문학 정신이 깃든 매지3리마을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 되고 싶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위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110

**인구** 250명

**가구** 115가구

**마을 자원**

옥수수, 김장, 친환경 농산물, 원주매지농악(강원무형문화재 15-2호),
사계절 축제

**행복마을 성공 비법**

사계절 이어지는 축제로 마을 화합
마을의 뿌리가 되는 전통과 명소를 보존
돌봄과 모심의 마을 가치를 통한 치유의 마을로 발전

## 사계절 신명 나는 축제로 하나 되기

백운산 아래 들어앉은 매지3리마을은 개건너마을과 회촌마을을 아우르는 곳입니다. 마을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동계는 주민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일체감을 유지하는 구심점입니다. 덕분에 세시 풍속과 전통이 대대로 이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축제가 사계절 내내 펼쳐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주 정월대보름 회촌 달맞이축제입니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7회를 개최했습니다. 망우리 돌리기(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어 어느새 원주를 상징하는 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회촌마을에서 시작했지만 근래에는 개건너마을까지 함께하며 마을 화합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음력 5월 5일에는 단오성황제가 열립니다. 주민은 전날 아침부터 성황제를 준비하고, 당일에는 어울려 놀다 성황당으로 올라가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립니다. 단오성황제도 회촌 달맞이축제와 같이 매지3리마을의 공동체 잔치로, 마을 화합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7월에는 옥수수축제가, 11월에는 회촌 김장축제가 열립니다. 두 축제는 마을소득에 큰 보탬이 되며, 젊은 세대가 마을에 정착하는 원동력입니다.

# 주민이 하나 되어 마을의 전통과 명소 보존

매지3리마을은 예술혼과 문학 정신이 깃든 고장입니다. 매지3리마을은 원주매지농악(강원무형문화재 15-2호)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원주매지농악은 농번기에는 두레 농악으로, 제사를 올릴 때는 축원 농악으로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주민은 축제가 열릴 때마다 원주매지농악으로 흥을 돋우고, 마을 언덕에 자리한 원주매지농악 전수교육관에서 원주매지농악보존회 전수활동과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원주매지농악 예능보유자 강성태 명인이 마을에 살며 원주매지농악보존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토지문화관은 마을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토지》를 쓴 소설가 박경리 선생을 기려 토지문화재단에서 지은 문화관으로, 1층에는 작가가 밭일하고 글을 쓸 때 사용하던 유품을 전시합니다. 작가가 《토지》를 완간한 뒤 이사해 1999년부터 2008년 5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던 이층집이 가까이 있습니다. 마을 초입의 토지문화관에서 마을 안쪽 언덕의 원주매지농악 전수교육관까지 걷노라면, 마을에 깃든 문학 정신과 예술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혼연일체로 마을의 뿌리가 되는 전통문화를 지키고 마을 명소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돌봄과 모심의 마을 가치를 치유 관광으로 승화

매지3리마을 주민에게 아이들을 돌보고 어르신을 모시며 마을을 지키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지금은 마을 전통을 '돌봄과 모심'이란 마을 가치철학으로 정립하고 널리 확장하고자 회촌 달맞이축제와 회촌 김장축제 등 마을 축제를 크게 엽니다. 축제를 통해 주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마을의 가치를 알리고, 축제를 즐기다 보면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에는 원주매지농악 공연을 비롯해 신명나는 놀이판이 펼쳐집니다. 원주매지농악 전수교육관에서는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방문자를 위해 창작 연희극과 매지농악 공연이 수시로 진행되고, 매지농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몸과 마음을 쉬어 갈 수 있는 흙집학교 '흙처럼아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힐링 스테이로 묵어가거나, 흙집 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농가맛집 토요(土謠)에서 건강식 밥상을 경험하고, 그 옆 갤러리 카페에서 느긋하게 차 한잔을 즐기며 작품 감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마을의 구성원이 된 이가 많습니다. 마을과 가족 공동체와 관광객이 어울리는 생기 넘치는 마을이야말로 매지3리마을이 꿈꾸는 모습입니다.

#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단오성황제(생생문화제 단오성낭제)**
음력 5월 5일
방문객 650명
주민 40명 참여

**옥수수축제**
매년 7월 중순
방문객 650명
주민 40명 참여

**회촌 김장축제**
매년 11월 초순
방문객 1,200명
주민 60명 참여

**회촌 달맞이축제**
음력 1월 15일
방문객 6,000명
주민 70명 참여

## 정부 지원 실적

2018~2019년
주민주도형농촌관광콘텐츠 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억5,000만원

#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매지리에는 원주매지농악의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우리 것이라 좋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삶의 희로애락이 살아 숨 쉰다는 걸 느껴야 하고요. 원주매지농악은 강원 영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농악입니다. 매지3리마을은 원주매지농악보존회가 있고, 원주매지농악이 전승되는 마을입니다. 지금처럼 그 신명과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을 덜어내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기를 바랍니다.

(원주매지농악보존회장, 강성태)

**“매지리는 생명의 철학이 깃든 땅입니다”**

원주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 사상이 깃든 고장입니다. 원주매지농악의 뿌리도 그와 맞닿아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생의 마지막을 매지리에서 보낸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원주매지농악 전수교육관, 토지문화관, 흙집학교 ‘흙처럼아쉬람’ 등이 그 철학을 잇고, 마을에서 주관하는 사계절 축제가 그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마을입니다.

(행복마을추진위원장, 최정욱)

## 여행 추천 코스 행복마을에서 즐기는 웰니스 여행

**1일 차** 토지문화관 → 0.36km, 승용차 5분 → 농가맛집 토요(매지3리마을) → 1.06km, 도보 16분 → 흙집학교 흙처럼아쉬람(숙박)

**2일 차** 흙집학교 흙처럼아쉬람 → 1.12km, 도보 17분 → 원주매지농악 전수교육관 → 12.75km, 승용차 21분 → 박경리문학공원

**농가맛집 토요**

매지3리 회촌마을 토요영농조합이 운영하는 농가맛집 토요(土謠)는 ‘흙의 노래’라는 뜻이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자재로 요리하고 조미료를 쓰지 않아 원주의 건강 식당으로 이름났다.

033-763-2923

문화 • 복지
동상

문화를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 경상남도 합천군 율지마을

율지마을은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2길 16

**인구** 68명

**가구** 40가구

**마을 자원**

밤마리 오광대, 율지나루, 낙동강, 활인대, 밤마리 문화교류센터,
밤마리 힐링센터, 야외 탈춤 공연장, 밤마리 오광대 문화체험관

**행복마을 성공 비법**

마을 역사 자원(밤마리 오광대) 보전과 발전을 위한 노력
주민 문화 동아리 활성화
축제 개최, 공연 참가 등으로 지역 정체성 향상

## 마을 주민의 협심으로 마을 역사 자원 복원

낙동강을 품은 율지마을은 오래전부터 율지장을 중심으로 합천, 고령, 창녕, 의령을 아우르는 물류의 거점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전국에서 모인 상인과 보부상을 상대로 신명 나는 오광대와 농악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율지장이 폐쇄되며 오광대도 잊힐 위기가 있었으나, 1980년 초계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행렬을 통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야문화제에서 학생들이 선보인 오광대를 본 주민들은 '율지마을이 최고로 번성했던 시기에 밤마리 오광대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잊힌 전통을 복원해 마을의 정체성을 되찾자는 공감대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기록이 소실돼 원형을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2000년에 합천 밤마리 오광대 보존회를 결성 했습니다. 그해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를 열며 드디어 오광대 여섯 마당을 선보였습니다. 축제를 찾은 이들은 흥겹게 즐겼고, 마을 사람들은 전통의 명맥을 다시 이으며 들떴습니다.

# 주민 문화 동아리 활성화로 문화 재능 환원

밤마리 오광대의 복원과 재현은 주민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던 마을이 왁자지껄 신명 나는 마을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주민이 대부분 합천 밤마리 오광대 보존회 회원이다 보니, 이를 발판 삼아 탈춤, 덕곡농악회, 난타, 밴드, 노래교실 등 다양한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밤마리 난타동아리, 청장년이 주축인 밤마리 주민밴드는 마을을 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을에서 열리는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와 합천 군내 행사는 물론, 멀리 진주와 의령 같은 경남 지역 축제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마을 입장에서는 주민 화합을 위해 시작한 동아리 활동이 문화 재능 환원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확장돼 더없이 기쁩니다. 2018년부터 율지마을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에게 공연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밤마리 문화예술연구소가 주관하는 '밤마리 음악창고 대방출'을 마련했습니다. 마을 동아리가 갈고닦은 재능을 맘껏 뽐내며 자랑하는 무대입니다.

##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 개최와 공연 참가로 지역 정체성 향상

율지마을의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는 올해로 20회를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셈입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축제를 이어온 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합천 밤마리 오광대 보존회를 결성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한 이들, 농사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이들이 없었다면 밤마리 오광대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율지마을 주민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이 잊힌 전통의 기초를 다져온 시간이라면, 이제 그 위에 빛나는 문화의 역사를 새로 쓸 시간입니다.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밤마리 오광대의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대장경 세계문화축전뿐만 아니라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등 타 지역 축제에 합천 밤마리 오광대 보존회가 적극 참여해 밤마리 오광대를 선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광대 발상지로서 지역 정체성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밤마리 오광대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경남 민속예술축제에도 꾸준히 출전할 계획입니다.

#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19명
2017년 12회
2018년 12회

문화프로그램운영위원회

회원 34명
2017년 12회
2018년 12회

합천 밤마리 오광대 보존회

회원 13명
2017년 주 1회
2018년 주 1회

밤마리 난타동아리

회원 16명
2017년 주 1회
2018년 주 1회

밤마리 주민밴드

회원 11명
2017년 주 1회
2018년 주 1회

서예동아리

## 정부 지원 실적

2003년

문화역사마을지정
〈문화체육관광부〉
3억원

2012~2016년

밤마리권역종합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60억원

#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 “신나는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 구경하러 오세요!”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가 열릴 때면 온 마을이 시끌벅적해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음악에 맞춰 이리저리 몸을 흔들면 저도 신나서 어깨가 들썩거리죠. 탈춤 공연이 끝나고 시작되는 난타 공연도 멋있어요. 북을 그냥 두드리는 것 같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공연이에요. 신나는 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에 여러분도 구경하러 오세요.”

(덕곡초등학교 3학년, 정성범)

### “밤마리 오광대는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밤마리 오광대는 우리마을의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잊힌 문화를 찾아내 복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마을의 자산이니, 밤마리 오광대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문화를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이 마을의 희망입니다.

(마을 대표, 서광복)

여행 추천 코스

## 우리 것의 소중함을 배우는 역사 여행

**1일 차** 해인사 → **6.8km, 승용차 14분** → 대장경테마파크 → **12.6km, 승용차 22분** → 율지마을(마을 구경, 숙박)

**2일 차** 율지마을(탈 만들기, 전통 놀이 체험 등) → **40.3km, 승용차 1시간** → 합천영상테마파크

**율지마을 체험프로그램**

탈 만들기, 전통 놀이, 전통 음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와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대 50인까지 수용하는 식당을 갖춘 밤마리 문화교류센터와 밤마리 힐링센터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055-932-9258

문화 · 복지
입선

주민 스스로 만드는 자치 복지 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귀덕리마을

귀덕1리마을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문화와 옛 장터를 되살린 '귀덕 밤마실' 행사를 통해 복지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인구** 1,204명

**가구** 507가구

**마을 자원**

큰여, 작은여, 거북등대, 귀덕연대, 귀덕본향당(할망당), 궤물수덕(용천수), 영등할망 신화 공원, 팽나무

**행복마을 성공 비법**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주민 복지 활동
'귀덕 밤마실' 행사 개최

## 한 푼 두 푼 모여 만든 '만원의 행복'

제주도 서쪽 한림읍에 위치한 귀덕1리마을은 제주 생활 문화의 특징인 반농반어가 뚜렷합니다. 주민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행정적인 지원으로는 경로당 운영조차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논의를 거듭한 결과, 마을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2017년 시작한 만원의 행복은 출향민을 포함한 주민이 매달 1계좌에 1만원씩 기부하는 활동입니다. 초기에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점차 늘면서 지금은 후원자가 19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복지 기금은 주로 마을 어르신 맛집 탐방과 특식 제공, 경로당 간식과 물품 지원에 쓰입니다.

후원자에게 지원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참여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마을의 취약 계층까지 수혜자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귀덕1리마을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후원자를 3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 마을 구석구석 스며든 복지 문화

마을의 노력은 아이들을 위한 귀덕초등학교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민의 숙원 사업인 행복주택(8세대)을 신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모금 활동을 펼쳐 약 3억원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행복주택 건립과 귀농인 빈집 빌려주기 사업은 60여 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를 90여 명으로 늘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학생 수가 늘면서 주민도 1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귀덕1리 마을회관에 마련한 수눌음 육아 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역시 공동체 문화와 복지가 생성되는 공간입니다. 주민은 이곳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고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이 마을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을 배움터에서 진행하는 줌바 댄스와 메이크업 강의도 주민이 서로 이해하며 어울리는 장입니다. 이외에 인근 리조트와 협력해 집 앞부터 경로당까지 셔틀 차량을 운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행복을 지원하는 또 다른 만원의 행복입니다.

## 주민이 다 함께 즐기는 '귀덕 밤마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요즘 제주 마을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귀덕1리마을은 예외입니다. 이주민이 약 200명이지만, 원주민과 이주민의 불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 함께 화합하고 어울려 재미있게 지냅니다. 그 중심에 '귀덕 밤마실' 행사가 자리합니다. 귀덕 밤마실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저녁에 주민이 직접 꾸미는 문화 야시장입니다. 처음부터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함께 기획했습니다.

바닷가와 맞닿은 영등할망 신화 공원에 작은 플리 마켓이 펼쳐지고, 학생과 동아리 회원이 출연하는 공연에 신명이 넘칩니다. 플리 마켓은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판매자를 주민으로 제한했습니다. 소박한 행사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마음으로 즐깁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주민도 이제는 일요일 저녁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이 하나 되는 분위기입니다. 귀덕1리마을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나 문제점을 해소하는 표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만원의 행복 운영위원회**

회원 180명
2016년 6회 / 2017년 4회
2018년 7회 / 2019년 5회

**귀덕 밤마실 행사 기획위원회**

2019년(6~10월) 1,000명 방문
2019년 10회

## 정부 지원 실적

2017~2018년
마을포제터복원
〈 제주시〉
9,000만원

2018년
행복주택건립
〈제주시〉
6억원

2018~2019년
마을복지회관건립
〈제주시〉
7억원

2019년
경로당건립
〈제주시〉
6억7,000만원

2019년
친환경주민건강쉼터조성
〈제주시〉
9,000만원

##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학교 밖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마을은 마을회관에 작은도서관과 재미난 놀이 시설이 있어요. 학교가 끝나고 여기서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일요일 저녁에는 귀덕 밤마실 행사가 기다려져요. 플리 마켓을 구경하고 노래자랑에 참여하거나, 마을 언니 오빠들이 펼치는 멋진 공연을 볼 수 있거든요.

(귀덕초등학교 4학년, 이준호·김조이)

"주민 모두 행복한 만원의 행복"

우리마을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복지 자치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원의 행복, 행복주택 운영, 노인 일자리 마련 등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세대를 뛰어넘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끈끈한 마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을 대표, 이남근)

여행 추천 코스

### 일요일 밤에 떠나는 귀덕1리마을 여행

1일 차

연화지 → 3.2km, 승용차 6분 → 금산공원 → 4.4km, 승용차 7분 → 한담해안산책로 → 3.2km, 승용차 4분 → 귀덕 밤마실

2일 차

한림공원 → 0.33m, 승용차 1분 → 협재해수욕장

영등신맞이 환영제

귀덕1리마을은 제주 땅과 바다에 씨를 뿌리고 가는 영등할망이 처음 들어오는 지역이다. 해마다 2월 초하루에 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영등신맞이환영제를 열고,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한다.

064-796-3438

문화·복지
입선

## 한마음으로 부르는 혼불아리랑

# 전라북도 남원시 노봉마을

노봉마을은 근대 문화유산인 서도역과 혼불 문학관이 있는 소설 《혼불》의 배경입니다.
주민이 한마음으로 문학 유산의 터전 위에 혼불아리랑을 써 나가는 마을입니다.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노봉길 84

**인구** 82명

**가구** 44가구

**마을 자원**

혼불 문학관, 서도역, 호성암 마애불, 농촌 축제(혼불 문학 신행길축제),
시골밴드, 슬로푸드 마을, 혼불아리랑 공연단,
특화작물(오이, 토마토, 고구마, 브로콜리, 친환경 쌀)

**행복마을 성공 비법**

활발한 마을 분과사업단 운영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혼불 문학 신행길축제

## 주민이 이끄는 분과사업단

노적봉 아래 위치한 노봉마을은 최명희 작가의 소설 《혼불》의 배경지로 잘 알려진 마을입니다. 《혼불》은 오늘을 살아가는 노봉마을 주민의 자긍심이자 화합의 구심점으로, 마을 곳곳에서 그 흔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가입한 분과사업단 또한 《혼불》의 정신이 녹아 있는 노봉마을의 특징입니다. 향토사업단, 슬로푸드사업단, 부녀회, 복사꽃사업단, 노인회, 시골밴드로 구성된 분과사업단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합니다. 각 분과는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분과장의 주도 아래 구성원끼리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운영합니다.

각 분과는 수익 사업은 물론 봉사 활동, 마을 경관 유지 등 마을 문제 해결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분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하니, 분과 활동이 활발하고 주민의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노봉마을의 활발한 분과사업단 활동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등급 결정 심사에서 1등급(으뜸촌) 선정이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 주민 스스로 만든 다채로운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마을

노봉마을은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합니다. 분과 활동을 비롯해 주민 스스로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기획하고 실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주민은 마을 자원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미흡한 부분은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하며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재 노봉마을 문화 복지 프로그램은 4개 분야(수익창출, 주민뷰티, 문화복지, 문화제 운영)로 나뉩니다. 그중 혼불아리랑은 마을 수익창출 분야로 마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모여 예전에 쓰던 물박을 악기 삼아 '아리랑'을 연주하는 취미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지금은 원정 공연을 다닐 정도입니다.

마을 주민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주민뷰티 분야의 어르신 케어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대표로 미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머니를 위해 네일 아트와 두피 마사지 등을 진행합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고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는 문화복지 분야, 마을 동아리 시골밴드가 꾸민 '서도역 가을 음악회'의 문화제 운영 분야 등 마을 분과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만큼이나 다채롭습니다.

## 자생적 '혼불'의 장, 혼불 문학 신행길축제

마을 문화 복지 프로그램은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 결정체가 혼불 문학 신행길축제입니다. 축제는 최명희 작가의 《혼불》을 토대로 합니다. 지난 2014년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혼불》의 주인공 효원 아씨의 혼례를 재연하는 행사를 시작했고, 이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축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부제를 달아 2015년 '효원의 시집가는 날', 2016년 '꽃심을 지닌 땅, 혼불', 2017년 '아소, 님하', 2018년 '천추락만세향' 등 스토리텔링을 가미했습니다. 모두 《혼불》 속 이야기를 구현한 내용입니다.

혼불 문학 신행길축제는 마을을 방문하는 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보다 마을 축제의 취지가 강합니다. 바쁜 가을 추수가 끝나고 주민 모두 참여해 고생을 위로하고, 서로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노봉마을에 꺼지지 않는 혼불이 있다면, 자기 의지로 마을을 지켜가는 주민일 겁니다.

#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 사업단 | 회원 | 활동 |
| --- | --- | --- |
| 향토사업단 | 회원 8명 | 월 1회 활동 |
| 슬로푸드사업단 | 회원 30명 | 월 1회 활동 |
| 복사꽃사업단 | 회원 15명 | 연 5회  활동 |
| 시골밴드 | 회원 9명 | 월 1회  활동 |

## 정부 지원 실적

| 연도 | 사업 | 지원 | 금액 |
| --- | --- | --- | --- |
| 2014년 | 향토산업마을 | 〈전라북도〉 | 1억원 |
| 2015년 | 농촌축제 | 〈농림축산식품부〉 | 4,000만원 |
| 2018년 | 슬로푸드마을조성 | 〈전라북도〉 | 5억원 |

##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혼불》 배경과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가 우리마을이에요”**

우리마을에는 혼불 문학관이 있어요. 잔디밭이 넓고 멀리 산과 들의 풍경이 멋진 곳이죠. 청호저수지와 산책로가 잘 가꿔져 걷기 좋고요. 마을 입구에는 소설 《혼불》에 나오는 서도역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촬영하고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사매초등학교 5학년, 박세영)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이 여깁니다”**

요즘 농촌은 대부분 인구가 줄어 고민이지만, 우리마을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름답고 《혼불》의 문학 정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귀농인과 정착민이 화합해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나 마을사업도 원활히 진행됩니다.

(행복마을추진부위원장, 박종선)

### 여행 추천 코스 《혼불》과 〈미스터 션샤인〉 속으로

**1일 차** 혼불 문학관 → 0.71km, 도보 11분 → 노봉마을 → 0.46km, 도보 7분 → 혼불체험관 → 0.28km, 도보 4분 → 혼불민박

**2일 차** 혼불민박 → 1.90km, 승용차 7분 → 서도역 → 16.1km, 승용차 25분 → 광한루

**혼불민박& 혼불체험관**

노봉마을은 최명희 작가를 기념하는 혼불 문학관, 《혼불》의 배경인 청암부인 종가와 청호저수지, 호성암 마애불, 서도역 등 볼거리가 많다. 혼불체험관에서 목공이나 슬로푸드 체험도 가능하다. 침대방과 온돌방 등이 있는 혼불민박은 주변 자연 풍광이 좋다.

063-625-9690 www.honbul.co.kr